

남성불감증 · 성욕과잉증

■ 남성불감증

'마음의 병', 75%는 희생
30 대 중반의 공무원인 P씨가 찾아왔다.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사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부인과 1시간이 넘도록 관계를 해도 사정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것이었다. 6개월 전에 부인이 조등학교 남자 동장생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남성의 성반응은 크게 발기와 사정으로 나누며 그 기능장에 역시 발기장애와 사정장애로 나누는데, P씨의 경우는 사정장애 중에서 지루증에 해당한다.

충분한 자극을 받고 발기가 되어도 사정이 지연되는 것을 지루증이라고 한다. 흔히 30분 이상 사정을 조절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조루완자들은 거짓말로 생각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정은 본인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의학 전문가인 마스터스와 존슨이 성치료 대상으로 잡았던 510쌍의 부부 가운데 지루증을 보인 부부는 17쌍에 불과했다. 물론

치료 대상에 들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지루증을 나타내는 경우도 은하다. 가장 가벼운 형태의 지루는 불안한 상황에서 일어난다.

예컨대 특정한 파트너와 관계할 때만 그렇든지, 좌의식이나 갈등을 일으킬 때 지루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경미한 지루 증상은 약간의 완상이나 자극의 강도를 높여주면 쉽게 해결된다.

또한 지루에는 일차성 지루와 이차성 지루가 있는데, 일차성 지루 증상은 여성과 관계를 할 때 처음부터 증상이 생긴 사람들이고, 이차성 지루 증상은 잘 지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지루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아주 심한 지루가 아니라면 강도를 높인 자극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남성들은 많은 여성들처럼 오르가슴을 가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심한 사람은 아무리 자극적인 완상을 동원하는 등 갖은 방법을 써도 여성 앞에서는 사정이 불가능하여 옆방에 가서 자위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조루완자들이 이차적 발기부전에 걸리는 것처럼 이 지루완자들도 이차적 발기부전에 걸린다.

병원을 찾을 만큼 그 증상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대개 1시간 이상 관계해도 사정이 곤란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손이나 오렐렉스로 그리 어렵지 않게 사정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도 꽤 있다.

발기부전이 여러 가지 기질적 원

인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지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루증의 원인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심리적인 것이다.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약물에 의한 경우이다. 세로토닌 흡수를 억제하는 약들은 지루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약은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신경전달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항우울제로서 조루 치료제로도 쓰인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은하게 사용되는 이 약이 지루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부 고열압 치료제도 사정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심리적인 원인이란 본인이 느끼는 무의식적인 위협과 관련이 있다. 은하게는 금지된 성행위를 하다가 발각되거나 심하게 처벌을 받고 난 다음에 은히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의 공격심과 적개심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P씨와 같이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지루 증상이 생기는 식이다.

지루증상이 있으면 보통 그 부인들이 오르가슴을 쉽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지루완자의 부인들은 1시간 이상이나 사정을 못하는 남편을 사정에 대한 배척이라고 의심한다.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면 얼마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게 된다. 미국의 중상류층 여성들의 은위

정사가 이와 같은 불신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조루의 치료가 자신의 성적 단계를 인식하는 행동요법에 주안점이 있다면 지루는 파트너가 손이나 다른 방법으로 사정을 유도하도록 하는 데 일단 중점을 둔다. 깊은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은 치료가 쉽지 않다. 치료 성적이 조루에 비해 떨어지지만 약 75%는 치료된다.

■ 성욕과잉증

성상환경과 밀접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으로 기원전 30년에 39세의 나이로 죽은 클레오파트라라는 타락과 교활함, 그리고 이국적인 외모로 유명하다. 심한 매부리코에다 입이 컸던 그녀는 그리미인은 아니었지만 균형잡힌 몸매와 뛰어난 화장술, 우아한 자태, 그리고 천사 같은 목소리를 가졌었다고 한다.

그녀의 성욕은 역사상 어느 여인보다 뛰어나서 야룻밤에 100명 이상의 로마 귀족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날도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어배우였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던 카사노바는 17세에 이미 법학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머리가 좋았다. 그는 어떤 장소에서도, 어느 누구와도, 어떤 계위로도 성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결혼을 사랑의 무덤이라고 여기고 12권의 자서전을 썼다.

나이 40도 되기 전에 발기부전이 된 카사노바는 73세에 죽을 때까지

거의 여자에게 접근조차 못했다고 한다. 그는 프랑스의 복권제도를 중시할 만큼 도박을 강박적으로 좋아했고, 또 호머의 [일리아드]를 번역한 번역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카사노바는 호색한의 대명사로만 알려진다.

성욕과잉증은 카사노바나 돈 우안처럼 책임도 못 지면서 여자 처여자를 건드리며 성적 탐닉에 빠지는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드문 현상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흔하다. 인구의 약 5% 정도가 성욕과잉증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 형태는 첫째, 한 여자를 정복하면 바로 다른 여자를 찾아나서거나 둘째, 맺어질 수 없는 파트너에게 죽자사자 매달리거나 셋째, 강박적으로 자위에 몰두하는 자기에에 빠지거나 넷째, 동시에 여러 명을 상대하는 형태 등으로 분류된다.

성욕과잉증의 원인은 어린 시절의 성적 충격이나, 성에 대한 심하게 억압적 성장 환경, 불안, 우울 등과 관계 있다. 갑작스럽게 성욕이 높아지는 것은 일부 정신병, 즉 정동장애의 조증에서 볼 수 있다.

대개 성욕과잉증은 오르몬이 증가하거나 성욕이 정말로 증가해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불안이나 우울의 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쉬운 예를 들면 4살난 여자 어린이가 자위행위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심심해서'라고 대답한다. 다시 말하여 불안을 해소시키는 하나의 심리 기전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다.

어떤 시기에 거의 강박적으로 못 견딜 정도로 성에 몰두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특히 사춘기 때, 강박적으로 이성에 몰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나 고독, 열등감 등을 성적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적 행동은 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만든다.

그것은 마치 알코올에 빠지거나 약물남용에 빠지는 것과 같다. 정상적인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성적 탐닉을 한다. 이런 과정은 짧은 기간에 끝나기도 하고, 또 성숙과정의 한 단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성적인 몰입을 다른 것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성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병이다.

일반적으로 성욕과잉증은 남성에 더 많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성적인 관점에서 봐서 그렇다. 여성들은 그들의 성을 직접적인 성관계보다는 친밀감이나 사랑이란 잣대로 평가한다. 때문에 동시에 여러 명의 남성을 상대하거나 한 파트너에서 강박적인 성행위를 벌이는 등의 행동은 여성들에서 더 흔하다.

시저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데리고 로마로 들어갔던 클레오파트라라는 시저가 암살당한 후 새로 집정관이 된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다. 그리고 또 쌍둥이를 낳았다.

그 뛰어난 시저나 안토니우스를 사로잡아 성적 탐닉에 빠지게 만들어 로마의 역사를 바꾼 클레오파트라였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자신과 안토니우스는 자살하고 세 아이들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7]

<편집자 주 : 이 원고는 설연옥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 (<http://www.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하에 실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02-512-1101)>